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장수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불복업무 돕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 향상 기대

장수군은 2일 영세 납세자들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돕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를 통해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이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하게 되면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3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

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

김기완 재무과장은 "기존 마을세무사 운영과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이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코로나19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 최선

3월 월례조회 방송으로 대체... 황인홍 군수, 지역경제 활성화·현안업무 추진 철저 당부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월 월례조회를 방송으로 대체하며 현안 업무들을 공유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지역은 특히 5도 접경지역인 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또 "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등 관련문서 유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감염예방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을 가

중시키고 있다"라며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기 위축도 큰 걱정"이라며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 임대사업장 이용료 감면 검토, 신속집행 추진,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 출시 홍보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부대 통제합과 관련해 말문을 연 황 군수는 "무주대대는 무주군

내 존치돼야 한다는 우리 군의 입장을 지난달 21일 35사단장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실히 했다"라며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서명운동을 비롯해 결의대회 등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공무원 선거중립, △해빙기 안전점검 및 조치, △산불예방 등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주요 관광지 5곳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운일암반일암·백운동계곡·풍혈냉천·구봉산 주차장·정천면 정자천 등 5개소

진안군은 운일암반일암 등 주요 관광지 5곳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관광공사, 전북도, 주요 통신사 지원을 받아 총 7400만원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입해 무료 와이파이 중계기 설치를 추진했다.

대상 관광지는 운일암반일암, 백운동계곡, 풍혈냉천, 구봉산 주차장, 정천면 정자천 등 5개소다.

서비스 시행으로 진안 관광지를 찾

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개인휴대폰 와이파이 설정을 'KOREA FREE WiFi 5G'로 선택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기가급 속도의 개방형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에게 빠른 속도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보안접속의 경우 강화된 보안기술이 적용되지만,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공와

이파이 서비스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주요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관광정보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과 통신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끊임 없는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영수 군수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신하 공직자 등을 포함한 선거중립 의무자들에게 대해 투명한 선거공토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선거중립·코로나19 방역 대응 철저 강조

장영수 장수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가짜 뉴스 엄중 대응

장영수 군수는 2일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하 공직자 등을 포함한 선거중립 의무자들에게 대해 투명한 선거공토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대응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장수군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장영수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달 4월 15일로 다가온 만큼 선거기간 중 신하 공직자들은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요즘 각종 SNS를 이용한 선거 홍보문에 무심코 쓰게 되는 댓글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해당될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및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쓸 것과 특정 종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 군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장영수 군수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및 유증상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더욱 철저한 방역과 대응으로 군민들이 안전한 장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코로나19 예방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보건소,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방지 총력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임옥)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무소독시설은 소독업체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고, 그 외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미용업소, 문화체육시설 등을 방문하여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진안군보건소는 현재까지 85개소 이용시설의 소독을 마쳤으며, 종교단체 등 소규모 시설에는 살균소독제를 보급하여 소독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신청을 받아 방역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30여개소의 소독을 완료했다. 방역신청은 팩스(432-2377) 또는 이메일(jman1365@hanmail.net)로 가능하며, 문의는 진안군자원봉사센터(433-1365)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청 홈페이지서 코로나19 정보 확인하세요"

진안군은 군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진안군청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정보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게시판 서비스는 코로나19 관련 △진안군 대응전략소식 △예방수칙 △선별진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동향 △대상별 맞춤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휴관이나 폐쇄 등 진안군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코로나19 게시판을 진안군청 홈페이지 내 '소통/참여-군정소식-코로나19'를 참고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빠른 정보전달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관련 진안군의 소식을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농산물 판매 촉진 등 시행

진안군은 2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관내 삼점 방문 매출액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방문객과 매출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산물 판매 촉진 및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원시장 및 홍삼한방센터 입주 점포와 로컬매장 등 총 100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3개월간 30%감정하고, ▲상공업 육성자금 대출 규모를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제조업은 기존대로 3억원), ▲전북도와 함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을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업체에서 3억원 이하 업체로 확대한다.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진안농산물 판매장려금 지원대상 품목을 오이·깻잎에서 모든 채소류로 확대하였고, ▲진안홍삼제품에 대한 특별할인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고원시장 내에 있는 청년활성화 사업을 3월부터 조기 추진하고,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규모를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확대, ▲공무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의 행복상품권 구매 운동을 전개하고, ▲전주에 소재한 진안로컬푸드 매장에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실과소별 주1회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행사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